

“행복·편안함 누리고 사는 자리가 해탈”

대원 스님 (오등선원 조실)

계룡산 제석굴에 위치한 학림사에 들어서면 선불장(選佛場)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학림사는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처인 오등선원과 재가자들을 위한 오등시민선원이 나란히 있는 ‘부처 뽑는 도량’인 것이다. 오등선원에 눈 밝은 이가 있어 불꽃 튀기는 진검승부를 겨루어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눈 밝은이가 휘두르는 활인검에 살아남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누가 알까 마는 그 곁날에 베이고 싶은 사람들은 대신처럼 여여부듯한 대원 스님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한 때 ‘남진제 복숭담’ (부산 해운정사의 진제 스님과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을 두고 선지식으로 존경하는 뜻에서 일컫는 말)을 말했다. 이제 대원 스님을 덧붙여서 ‘중앙에는 대원 스님이 있다’고 한다. 공부인으로서 진검승부 끝에 얻어낸 명성인 만큼 오등선원에는 진실로 깨달겠다는 수좌들이 방부를 들인다. 대원 스님은 깨우침에 있어 조금의 숨김도 없이 자신의 공부를 낱알이 드러내어 제접하기에 ‘남진제 중앙대원 복숭담’이라는 말

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행자는 대근기”라 칭찬했다. 대원 스님은 공부에 높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다.

“여러 번 강원을 보내달라고 청했지만 일만 시키고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사미계를 받고는 결망을 매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청암사로 갔어요. 청암사에서 고봉 스님으로부터 사지와 선요를 배웠는데, 그때 경안이 조금 열리네요.”

그 후 풍도사에서 성능 스님과 호경 스님께 사교를, 대교는 혼해 스님께 배워서 내전을 두루 다 익혔다.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잠을 아껴가며 공부했다.

1966년, 혼해 스님을 모시고 선이륙과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웅맹정진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혼해 스님께서, ‘전백장(前百丈)은 불락인과(不落因果)라 하여 여우 몸에 떨어졌고, 후백장(後百丈)은 불매인과(不昧因果)라 하여 여우 몸을 벗어났어. 여우 몸을 벗어났어 해주었는데, 불락인과라 답한 것이 어찌해서 여우 몸에 떨어졌고?’ 묻는 겁니다. 사지(四集)에 있는 말 아니면서 어찌나 다그치시는지...”

이 물음에 망연자실하여 한 생각에 빠졌는데 사

수 없기 때문에 의정을 돌이켜 과연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를 늘 반성해야 한다면서 화두참선에 대한 병폐를 짚어주었다.

“화두공안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서 타파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 공안을 사랑으로 알려 하면 안되고, 화두를 깊이 관하는 것은 내 자성을 바로 보고 깨닫기 위한인데, 화두에 집착하는데 떨어져서 화두를 가지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화두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놈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어 놓으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불하기 위해서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 명호를 받아놓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끊임없이 불렀고 잊지 않고 열불하는 것과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 안하러 해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하게 물어야 해요. 의정삼매(疑情三昧)에 들어서 기원이 닿을 때에 일대사를 마치게 됩니다.”

대원 스님은 선방에 다닐 때도 조실 방에 가서 열심히 묻고 점검 받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상원사, 법어사, 송광사, 칠불암 등 전국 9개의 제방선원에 안거하면서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입승 및 섣덕 소임을 맡아 경책을 받아가면서 30년 세월을 선수행으로 일관했다.

천 가지 파도속에서 순풍으로 바꿀수 있고
싸움속에서 어깨춤 출 수있어야 깨달음이 현실화



대원 스님은 1957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 윤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 1961년 하동산 스님에게 구족계 수지. 고봉, 석능, 혼해, 호경 스님으로부터 일대사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남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시민선원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전력.

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대원 스님의 거처는 선승의 거처답게 소박하고 단출했다. 대원 스님의 방에는 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다. 용성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이 고암 스님이시고 고암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이 대원 스님이다.

대원 스님은 남장사에서 행자 시절을 보냈다. 먹물 옷을 입은 스님이 지나가면 그저 좋아 줄레줄레 따라다니다 화입도 채 마치지 못하고 들어왔으니 주지 스님의 말씀 한 마디가 그대로 법인 줄 알았고, 강사 스님의 가르침 또한 귀히 여겨 한 글귀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년 동안 일주된 밖을 나가지 않고 공양주를 비롯하여 채공, 강두까지 도맡아서 했다. 행자노릇을 할 때 500여 명 정도가 왔다가는 도량이었을 정도였으니, 그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지스님은 쌀 두말을 주면서 5일 동안 먹으라고 했지만 절 집안의 대중이 일정치 않아 들쭉날쭉하였기에 항상 쌀은 모자랐다. 그럴 때 마다 주지스님은 쌀을 어디다 감추었느냐면서 야단을 치고는 한 겨울에도 밖으로 내몰았다. 이런 어려움을 견디어

를 밤과 낮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다시 혼해 스님의 “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느니라”는 말씀에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일개(一鬮)를 지어 바쳤다.

크게 한 소리에 허둥지둥 무너지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네. / 거연히 한걸음 나아가 머리를 돌이켜보니/ 산은 드러나고 시냇물은 곡 밖으로 흐름 일세(大喝一聲倒乾坤 日月星宿失光明 遽然一步回頭看 露山溪水谷外流).

혼해 스님께서 계승을 보시고는 “대원수좌는 강사하지 말고 선방에 가서 열심히 참선수행토록 하라”고 일했다. 그 길로 공장 의정부 생룡사의 전강 스님을 찾아뵙고 참선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의 화두를 의심해 나아간다는 것은 생과 사에 대한 의심, 본래 부처에 대한 의심 등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을 하나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면 모든 의심이 일시에 없어지게 되어 어요.”

공부를 지음에는 이러한 의심이 없이는 성취할

대원 스님은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던 당시를 회상했다. 고암 스님은 3대, 4대, 6대 세 번이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지냈던 분으로 자비 보살로 통하고 있는 분이다.

1973년 고암 스님이 해인총림 방장으로 머물 때에 저녁 정진을 마치고 방장실을 찾으니 “지금도 정전백수자(庭前白樹子)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가, 몇 년이나 참구하였는가?” 하고 공부의 진척을 물었다. ‘8년간 참구하였다’는 답을 듣고서는 “에석하다” 하시면서 한 말씀 일했다.

“자나무 꼭대기 위에서 손을 놓고 한 걸음 나아가갈 때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면목이었는가?”

대원 스님은 이 한마디에 홀연히 크게 깨우쳐 박장대소했다. 이에 고암 스님은 “무슨 기특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웃는가, 속히 일러라”하고 재촉했다. 삼배를 올리고서 “설사 천언만구(千言萬句)를 다 이룬다 해도 이 속에 있어서 상신실명(喪身失命)합니다” 하고 문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앉았다. 다시 고암 스님이 마조원상 공안(公案)을 물었다. 주장자로 원상을 그리더니 “여기에 들어가도 30방(擲)이요, 나가도 30방이니 일러라”고 했다.

“깎고 앉았던 좌복을 머리에 이고서 ‘이것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니야’ 하시며 주장자로 나를 치려고 하시는 참나에 좌복을 스님 머리 위에 던지고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 앉으니 고암 스님께서 ‘눈 푸른 남자는 속이기 어렵도다’ 하시고는 1700공안을 두루 물으시네요.”

1700공안에 대한 답까지 다 해마치고서 고암 스님께 오도송을 지어 올렸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3월16일(월요일)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 비밀 보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